

지역 매아리

부안서 국제 로버무트 팡파르

국내의 대학생 스카우트 20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국제 로버무트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박 3일간 부안 출판단지 팡파르공원에서 개최된다.

한국로버스카우트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부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국제 로버무트는 13일 개영식을 시작으로 과정활동, 국제의 밤, 폐영식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국내외의 대학생 스카우트 20여명은 이영활동을 비롯해 캠프체험 및 수상활동 등 다양한 과정활동에 참여한다. 또 인종과 문화, 지역을 뛰어 넘어 전 세계 대학생 스카우트들이 소중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국제의 밤 행사도 진행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국제 로버무트를 통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스카우트 지도자의 자질을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2023년 제25회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훌륭한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들을 이끌고 꼭 다시 만나고"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심화과정 아카데미 수료식 가져

정읍시가 12일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운영한 '2019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아카데미 전 과정을 수료한 30여 명의 교육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와 함께 소감을 발표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아카데미는 기존의 도시재생 대학과 도시학교, 도시재생 리더양성 과정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심화 과정이다.

아카데미는 문화와 관광, 주거재생, 상가 활성화와 방안 등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사례, 워크숍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도왔다.

유진섭 시장은 "교육참가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 과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도심 4개 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 철저 준비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 부서장 출신 청렴도 1등급 달성 최선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제25회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제25회 북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리고 이제 세계의 이목이 4년 뒤 부안에서 열리는 제25회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집중될 것"이라며 "세계잼버리는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기회인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잼버리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소천 수

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잼버리 콘텐트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청렴문화 정착은 부안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부터 솔선하고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청렴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에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격포항 확장개발사업과 격포·위도 연안 정비사업,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사업, 상왕 등도 연안항 개발사업 등이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도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베정권 NO!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부안군애향운동본부, 일본제품 불매운동·규탄대회 전개

부안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장용석)는 12일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아베정권 규탄대회 등을 전개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제품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여행도 자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안지역 사회단체에서도 보이콧에 동참하며 일본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규탄대회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경제보복 아베정권 NO!' 등을 주제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 인구늘리기 동참 및 지역경제 살



부안군애향운동본부가 12일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아베정권 규탄대회 등을 전개했다.

리기 캠페인에 함께 실시했다. 장용석 부안군애향운동본부장은 "우리나라 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살

리기를 통해 "수출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회 촉구와 식민시대 강제징용피해자에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위 사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선대 정읍농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더욱 가열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회장 이석변)가 12일 정읍시 시청광장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정읍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별 회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복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정읍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출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회 촉구와 식민시대 강제징용피해자에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위 사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선대 정읍농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더욱 가열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12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부안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개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2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부안스포츠파크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축구와 족구, 배구, 테니스, 자전거, 요트 등 6개 종목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며 감사지원 및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외에 전문체육 분야도 적극 지원하며 부안군 출신 선수들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의 유능한 자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사로 채용하는 등 체육일자리 창출과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마포구 청소년 교류사업이 최근 고창군 일원에서 열렸다.

고창군·서울마포구 청소년 교류사업 성료

고창군과 서울시 마포구가 주관한 고창군·마포구 청소년 교류사업이 최근 고창군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년 교류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와 고창군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6월에 진행됐던 양 지역 청소년지도자 간의 교류사업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교류 사업이다.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도화 청소년 문화의집과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등 3개 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 등 40여명이 고창을 찾았다. 고창군은 청소년 참여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해 총 80여 명의 아이들이 우정을 나눴다.

첫날에는 고창군 청소년 운영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어 체육관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고창읍성에서 포스트 미션활동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해 각종 시설들을 견학한 후 시설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사업에 참가한 마포 청소년문화의집 김예원 청소년 운영위원은 "양 지역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청소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뜻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고창의 청소년들이 마포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고창군과 마포구 양 지역 간의 자매결연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s.